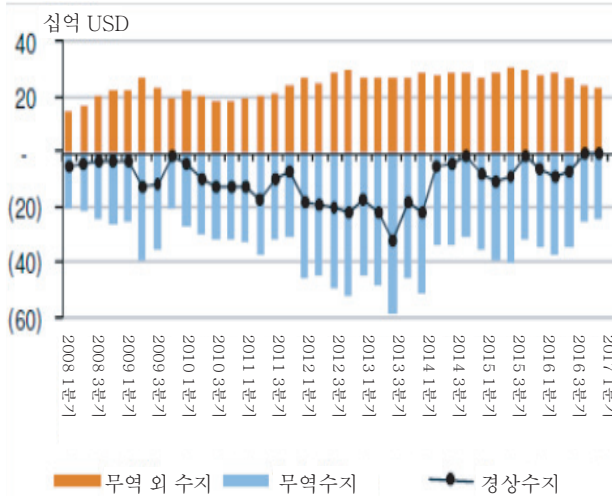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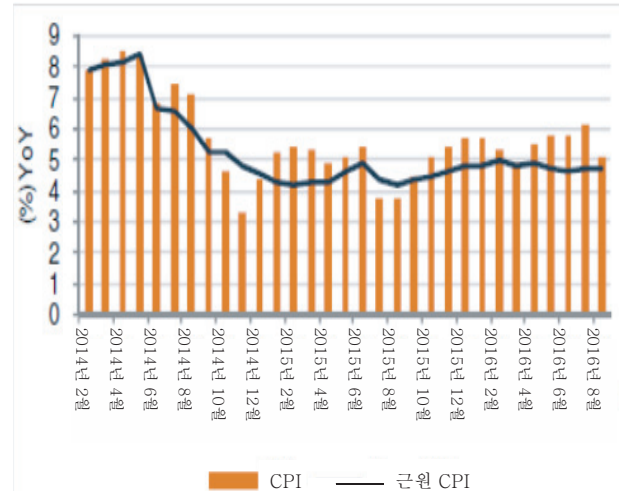


인도의 경상수지 상태



출처: CSO, UTI MF Research

인도 인플레이션 - CPI 및 근원 CPI (% , 전년 대비)



출처: Office of Economic Advisor, MOSP, UTI

1.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폭, FY17 1분기에 더욱 감소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도 \$61억 달러(GDP의 1.2%)에서 올해 1분기 \$3억 달러(GDP의 0.1%)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수지는 \$41억 달러 상당의 FDI와 \$21억 달러 상당의 외국 기관 투자자(FII)들의 자금 유입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전체 경상수지는 낮은 상품 가격(낮은 수입 결제로 인한 무역적자 감소)에 따른 혜택을 보았습니다.

2. 8월 인플레이션 완화, 추가 금융완화 정책 뒷받침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7월 6.07% 대비 8월에 5.05%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 지수는 식료품 가격에 대한 완화 압력에 힘입어 1%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 추세는 식료품 가격 지수의 급격한 하락과 연료 가격의 조정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3.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인도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1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CDSL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16억 달러 상당의 주식과 \$1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인도 자산 구입에 도움이 되는 금융완화, 최근 개혁의 속도 및 강력한 거시적 기초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갈수록 호전되고 있습니다.

4. 인도 연방 내각이 철도 예산의 병합을 승인하며, 이 부문 최대의 개혁 성과 달성

오랫동안 별도의 예산을 상정해 오던, 연방 내각은 철도 예산을 일반 예산과 병합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차기 재정연도 2017-18부터 발효). 이는 인도철도공사에 더 이상 예산지원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게 연간 배당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불황을 겪고 있는 철도 부문에서 약 \$15억 달러의 즉각적인 절감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5. Moody's, 인도의 추가 긍정적인 발전 확인

Moody's는 인도 정부가 조처한 개혁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증폭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소강상태인 민간투자자와 은행 부문의 위험이 인도 국가 등급에 제약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Moody's는 또한 인도의 은행 시스템이 자산 수준의 하강 주기의 최악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 전체적인 산업 산출물 8개월 최저치 기록, 인프라 산출물 상승

7월 산업생산지수(IIP)가 전년대비 -2.4%로 8개월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6월의 2% 증가 대비 하락세로 역전된 것입니다. 광산, 제조 및 전기산업에서 생산증가율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조절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편, 산업생산지수(IIP)의 38%를 차지하는 인도의 핵심 산업 산출물(인프라 부문)은 8월에 전년대비 3.2%, 7월 대비 3% 상승했습니다.

7. 인도, 글로벌 경쟁력 지수 상승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인도는 138개 국가 중 16계단을 뛰어 올라 39위를 기록하며, 이 설문 조사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식/단위 제안을 구성하지 않으며 의견이나 광고에 대해 추천이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임의의 증권의 이율이나 가격에 대한 향후 가능성 있는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나 대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기 주장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 보고서를 받는 특정한 사람의 특정 목적, 재무적 상황 및 특정 필요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문서에 언급된 임의의 증권, 금융상품 또는 투자 전략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